

보도 일시	2022. 12. 7.(수) 11:00 12. 8.(목) 조간	배포 일시	2022. 12. 7.(수) 09:00
담당 부서 <총괄>	축산정책국 축산경영과	책임자	과 장 정재환(044-201-2331)
		담당자	사무관 신소연(044-201-2342)

“한국 젖소 101마리 네팔에 간다” 농식품부, 한국형 젖소 유전자원 네팔에 지원

- 국내 최초 젖소 생우 해외 지원 사례로 비정부 기구(INGO) 헤퍼코리아와 함께 추진 -
- 한국형 젖소 종자(종모우, 인공수정용 정액) 및 젖소 101마리 12월 22일 네팔로 출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국제개발기구 헤퍼코리아(Heifer Korea, 대표 이혜원)와 함께 한국형 젖소 종자(종모우, 인공수정용 정액)와 젖소 101마리를 12월 22일 항공편으로 네팔에 운송한다고 8일 밝혔다. 한국의 젖소 씨종자소와 젖소 암소 생우가 해외로 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농식품부는 국내 낙농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 환경에 최적화된 젖소 종자를 생산해 낙농가에 꾸준히 보급하고, 젖소 검정사업*(전체 우유생산이 가능한 젖소의 65% 참여)을 추진하여 젖소 사양관리방법을 개선하는 등 우유 생산성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젖소 1마리당 우유 생산성**은 세계 5위 수준에 이르렀다.

* 젖소 검정사업: 젖소의 산유량, 유성분 등 생산능력 및 번식능력을 조사하여 유전능력을 평가하고 젖소개량을 촉진하는 사업

** 젖소 1마리당 우유 생산량(연간): 이스라엘 12,512kg, 미국 11,119kg, 캐나다 10,852kg, 스페인 10,786kg, 대한민국 10,423kg

이번 국제개발협력사업(ODA)은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지원한 것으로 6·25전쟁 이후 헤퍼인터내셔널(Heifer International)과 국제 사회의 도움으로 젖소를 받아 낙농업을 재건했던 우리나라가 이제 도움이 필요한 नेपाल에 우리의 축산자원을 지원함으로써, 원조를 받던 수원국에서 국제개발협력사업(ODA) 원조를 하는 공여국으로 변모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라고 할 수 있다.

*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부터 1976년까지 헤퍼인터내셔널(Heifer International)에서 총 44회에 걸쳐 우리나라에 젖소 897마리, 황소 58마리, 염소, 돼지, 닭 등 3,200마리의 가축과 생태계 회복을 위한 150만 마리의 꿀벌을 지원받음

네팔은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1,223달러로 전체 인구의 80%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다. 낙농업은 네팔 국내총생산(GDP)의 9%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이며 전국에 약 750만 마리(추정)의 젖소를 보유하고 있으나(우리나라는 약 39만 마리) 젖소 생산성은 매우 떨어진다. 네팔 토착종 젖소의 연간 마리당 산유량은 880kg, 교배 개량종(홀스타인/저지)은 3,000kg 수준으로 우리나라 젖소 산유량(9,000~10,000kg)의 1/3 수준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우리 젖소는 단순히 보내는 데 그치지 않고 국제개발협력사업(ODA) 지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후속 활동을 통해 개별 농가에서 안정적으로 사육하며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우선 네팔 정부가 추진 중인 신둘리 지구(네팔 수도 카트만두서 남동쪽으로 약 150km 거리) 시범낙농마을 소농 가정에 분배하여, 농가별 교육, 개체별 식별번호(ID)부여 후 모바일앱을 통한 사양관리, 우리나라 젖소 전문가 파견,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 등 다양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진다. 네팔에서 희망할 경우 국내 젖소농장에 네팔의 근로자가 사육기술도 배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형 젖소 유전자원(종모우 및 정액)은 네팔 정부 차원의 유전적 개량을 통해 낙농 생산성을 향상시켜 네팔 낙농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위해 농식품부는 2021년 6월부터 네팔 정부와 생우 및 정액 위생조건에 대한 수출검역협상을 진행했으며,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마무리함에 따라 양국 간 해외 반출 검역 및 통관 전반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번 달 22일 네팔로 출발하는 젖소 101마리는 헤퍼코리아가 진행한 대국민 후원(클라우드 펀딩)과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서울우유협동조합 등과의 협업, 그리고 뜻있는 국내 낙농가의 암소 기부를 통해 마련되었으며, 미네랄, 비타민, 사료와 같은 사육물품 및 동물약품도 기증을 받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운송을 앞두고 있는 젖소는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검역 시행장에서 기본 검진, 백신 접종 등 출국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은 “한국의 젖소는 지난 40년간 개량정책과 낙농가의 노력으로 낙농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우유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다” 라면서, “이번 지원사업은 이제는 어엿한 공여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위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 우리의 소중한 자원이 네팔 낙농산업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양국 간 우호 증진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붙임 1. 관련 사진

2. 국가별 젖소(홀스타인) 생산성 및 네팔 낙농산업 현황
3. 네팔로 젖소 보내기 사업 개요
4. 헤퍼(Heifer) 코리아 소개

담당 부서 <총괄>	축산정책국 축산경영과	책임자	과 장 정재환 (044-201-2331)
		담당자	사무관 신소연 (044-201-2342)
<협조>	국제협력국 검역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미영 (044-201-2071)
		담당자	사무관 김지호 (044-201-2072)



네팔에 지원 예정인 젖소의 검역시행장(경기도 화성) 입소 사진

□ '21년 젖소 1두당 우유 생산성(우리나라는 세계 5위 수준)

(단위: kg)

순위	국가명	305일(젖소 산유기간) 보정 유량(A)	일일 생산 유량 (A/305)
1	이스라엘	12,512	41.0
2	미국	11,119	36.5
3	캐나다	10,852	35.6
4	스페인	10,786	35.4
5	대한민국	10,423	34.2
6	에스토니아	10,304	33.8
7	헝가리	10,301	33.8
8	핀란드	10,170	33.3
9	일본	9,905	32.5

* 출처: 국제가축기록위원회('21년 국가별 검정자료 기준, 단 미국은 '19년)

□ 네팔의 낙농산업 현황

- (농업 중심 경제구조) 농업 분야 비중은 2020년 23.1%, 전체 노동인구의 64.5%가 농업에 종사하는 등 농업분야는 네팔 경제에서 매우 중요
 - 낙농업이 네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 대부분의 농가에서 가축은 주요 영양 공급원이자 소득원임
- (사육현황) 전국적으로 추정되는 소의 개체 수는 총 1,280만두(젖소 750만두, 버팔로 530만두)로 한국(젖소 약 39만)에 비해 많으나, 젖소 중 13%만이 홀스타인·저지 교배 개량종임(나머지 87%는 제부 등 토착종으로 유량이 적음)
- (산유량) 연간('19하~'20상) 총 산유량은 230만톤이며 매년 증가 추세(10년 전에 비해서는 47.8% 증가), 단 젖소 우유가 40%, 버팔로 등 우유가 60%
- (낮은 생산성) 네팔 교배종 젖소는 3,000kg/두/연(8.2kg/일), 버팔로는 1,158kg(3.2kg/일), 토착종 젖소는 880kg(2.4kg/일) 수준

* 네팔의 우유 생산성은 우리나라의 60년대 초반에 해당

□ 추진 목적

- 한국형 젖소 및 유전자원(종모우, 정액) 지원을 통해 네팔 낙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세계적 수준의 가축 및 유질 관리 지식 및 기술 공유

□ 추진 경과 및 진행 사항

- 네팔 정부와 생우 및 정액의 위생조건에 대한 협약을 진행하고 양국 간 해외 반출 검역 및 통관 전반에 대한 지원 체계 마련(농식품부, '21.6월~'22.11월)
- 네팔 정부* 및 헤퍼네팔과 지원 농가, 방식 등 세부 사업 내용 확정(헤퍼코리아, '21.1월~'22.11월)

* 농림축산개발부, 국립가축개량센터, 카말라마이 지방정부, 낙농개발공사, 낙농개발위원회 등
- 네팔 정부 관계자, 낙농 이해관계자 등과의 업무 협의('21.12월)

- 국내 분야별 축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전조사팀*은 현지 낙농 인프라(신설 축사 등) 및 사양관리 전반을 진단('22.6월)

* 농협 젖소개량사업소, 낙농가, 서울우유, 사양전문가, 헤퍼 관계자 등으로 구성

- 대국민 크라우드 펀딩, 유산 후원, 목장 후원, 기관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 추진 기금 마련(헤퍼코리아, '21.4월~'22.11월)

- 젖소 암소(101마리), 종모우(2마리), 인공수정용 정액(2천str)은 기증과 매입을 통해 확보

- 미네랄, 비타민, TMR·농후사료, 백신 등은 기증을 통해 확보하고 운송 과정 및 젖소의 현지 적응을 위해 지원

- 생우 항공 수송을 위한 특별 전세기(아시아나 A350)비용 지원(헤퍼인터내셔널)

- 지원 대상우는 검역시행장(화성)으로 이동하여 검역(질병 및 임상검사) 진행('22.12월, 농림축산검역본부)

- 인천공항에서 선적 후 네팔(카트만두 공항 등)로 4회에 걸쳐 운송(12.22~31)
 - 첫 번째 선적 시 인천공항에서 환송식을 하고 네팔 카트만두 공항에서 환영식 예정('22.12.22)

◇ “네팔로 101마리 젓소 보내기” 환송식 일정(안)

- ▷ 일시 : 2022년 12월 22일(목) 10:00
- ▷ 장소 : 인천공항 아시아나항공화물 터미널 B2동
- ▷ 내용 : 젓소 암송아지 비행기 이송 시작 및 환송
- ▷ 참석 : 농식품부 장관, 주한 네팔 대사, 농협중앙회장, 서울우유협동조합장, 헤퍼코리아 대표, 과거 헤퍼 가축구호 수혜자, 젓소 기부 목장주 등 예정

- 젓소 수송 중 상시 건강 체크 및 긴급 대응을 위한 전문수의사 네팔 동행 예정(12.22~31)
- ODA사업(KOICA)으로 지역 소농의 생계소득 향상과 현지 낙농업 발전을 위한 후속 인프라 구축 및 그린·디지털 기술협력 수행 예정('23~'24)
 - * 농업현장학교, 조직 형성 등을 통한 사양관리 역량 강화, 국내 사양관리·인공수정 전문가 파견, 개체별 ID 부여 및 모바일앱을 통한 사양관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 등

□ 기대 효과

- (한국) 한국의 생우가 해외로 가는 첫 사례로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변모한 한국 낙농산업 우수성을 국제 사회에 알리고 시장개척의 기회
 - 양국 간 민-관 상생 번영의 파트너십 협력 기반을 마련해 향후 연계 산업의 진출, 기술 협력, 인적 교류, 공동 연구 등으로 확장 기대
- (네팔) 농가는 가축 사육을 통해 생계소득을 창출하고, 소농(여성) 중심의 협동조합 구축을 통해 낙농 가치사슬 강화
 - 정부는 국가 낙농업의 구조적 개선을 통해 젓소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 영양의 기본 요소인 우유 및 유제품 자생적 보급 기틀 마련

□ 헤퍼 인터내셔널 소개

- 1944년 설립된 헤퍼인터내셔널은 UN 차원에서 가축을 통한 국제구호·협력 사업을 최초로 실시한 미국의 대표적인 민간 국제개발 수행기관
- 2021년 기준 순자산 2억8700만 달러로 전 세계 20위 이내에 속한 INGO(International NGO)로 Charity Navigator 등 관련 평가기관으로부터 투명성과 책무성 분야 최상위 평가 획득
- ‘물고기 한 마리가 아닌 잡는 법을 전수한다(Not a Cup, But a Cow)’는 철학 아래, 설립 이후 전 세계 총 3,980만 가구의 생계소득 창출을 지원(2021년 기준)

□ 전쟁 이후 한국의 농축산업 기틀 마련

- 6·25전쟁 이후 폐허가 된 국내 농가에 1952년부터 1976년까지 가축 3,200여 마리와 기술교육·훈련을 지원하고 “패싱 온 더 기프트*”를 통해 한국의 초기 농축산업 기반 마련에 기여(젓소, 황소, 돼지, 염소, 양, 벌꿀, 닭 등)
- * Passing on the Gift : 수혜자가 첫 번째 암컷 새끼와 전수받은 기술·지식을 이웃에 전하는 원칙을 통해, 수혜 가정의 자립과 지역공동체에 나눔의 연쇄효과가 발생하도록 고안된 헤퍼의 핵심사업 모델

□ 헤퍼코리아 주요 사업

- 헤퍼코리아는 2020년 9월 설립되어 ‘가축 한 마리로 시작하는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한국형 젓소 101마리를 네팔로 보내는 대규모 축산자원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 전개 중
- * 네팔에 우수한 품종의 한국형 젓소 지원, 신동리 축산농가 생산성 및 가치사슬 체계 향상을 위한 협력지원 사업, 동남아시아 헤퍼 지부와의 삼각협력사업을 통한 빈곤층 여성 역량강화 교육 지원, 차세대 국제개발협력 분야 인력 및 활동가 역량강화 사업 등

